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월 23일(주일) 제1378호

온누리 생명나눔의 날!



2월 5~6일, 12~13일, 27일 '헌혈 버스 방문'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시간대별 10명

온누리교회에 헌혈 버스가 방문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회에서 헌혈하는 '생명 나눔의 날'을 준비했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는 서빙고온누리교회 2월 5일(토)과 1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월 6일(일)과 13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헌혈 버스 3대가 방문하는데 성도 120~130명이 헌혈할 수 있다. 양재온누리교회는 2월 6일(일)과 13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주차장에 헌혈 버스 1대(80~100명), 도곡온누리교회는 2월 6일(일)과 13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숙명여고 주차장에 헌혈 버스 1대(40~50명)가 방문한다. 수원, 부천, 인천온누리교회는 2월 27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생명나눔의 날'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헌혈은 한 시간 간격으로 이어

진다. 시간대별로 선착순 10명이 신청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날' 당일에는 신청한 시간에 맞춰 교회에 도착해야 한다. 문진을 한 다음 헌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도 계속되고 있다. 4월 17일 부활절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 생명나눔의 기적에 온누리교회 성도 151명이 동참했다(1월 19일 기준).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가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종료
새벽기도회는 계속 ... 각 캠퍼스, 온라인

지난해 12월 13일(월)부터 올해 1월 21일(금)까지 이어진 2021-20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대장정을 마쳤다.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CGNTV,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오전 6시에 진행됐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마태복음 5~7장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했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이상준 목사(양재온누리교회), 이기훈 목사(사회선교), 이기원 목사(회복사역), 김규철 대표(NIBC), 강동진 목사(보나콤공동체 대표),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천종호 판사,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도 설교했다.

무엇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풍성했다. 온 가족이 함께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한 이승아 집사(명택온누리교회)는 "온 가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정태은 집사(서산온누리교회)는 "힘들고 두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고백했다. 김수지 자매(SNS청년부)는 "새벽기도가 하루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매일 새벽기도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견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정혜인 권사(일산공동체)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기를, 자녀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기도했다"고 간증했다. 조항진 장로(장로중보기도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심신에 새 활력과 소망을 심어준 시간이었다"면서 "올 한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좁은 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벽기도회는 계속된다. 서빙고 오전 6시, 양재 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부천, 수원, 양지 오전 6시, 대전 오전 5시 20분, 세종교육관 오전 6시, 남양주, 평택, 인천 오전 5시 20분, 강동 오전 6시 20분, 안산M센터 6시 본당과 각 캠퍼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헌금작성 신규 3천9백 명, 19억 봉헌

난민, 이주민, 코로나19 구호에 집중

지난 1월 첫주와 둘째 주일 실시한 '2022 선교헌금 작성'에서 온누리교회 성도 3천9백 명이 약 19억 원을 신규 작성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국내외 난민, 이주민 선교, 코로나19 구호, 선교사 케어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동참해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성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돌보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12월 31일까지, 순 단체채팅방 은혜 나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값진 새해를 보내고 있다. 그 중심에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가 있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어진다. 성경읽기표를 따라 성경 전체를 1독(讀)하는 과정이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서로에게 동기부여와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장점이 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새해 계획인 '성경일독'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매일 오전 교회에서 공동체 총무들에게 성경읽기 링크(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기독교 OTT '풍당',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읽기')를 보내주면, 총무들은 공동체 순장들에게 링크를 전달한다. 순장은 순 단체채팅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순원들에게 성경읽기를 독려하면 된

다. 짧은 나눔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순 단체채팅방에 감동한 구절이나 짧은 은혜 나눔글 혹은 "아멘", "읽었습니다" 등을 남기면 된다. 우리말성경 버전(AI기술로 하용조 목사 음성재현)과 개역개정 버전(드라마 바이블)이 제공된다. 성경읽기 기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변대섭 목사(성복공동체)는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1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날 분량을 못 읽어도 진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서 "순원들과 함께 꾸준히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신년특집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④ 온사랑합창단의 소금과 빛 '문소현 총무'

“그 말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온사랑합창단 문소현 총무의 고백 그리고 사명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표어로 내걸고 2022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기관, 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온사랑합창단 문소현 총무(42세)다. 온사랑합창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현재 22명의 단원들과 10여 명의 교사(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박철웅 목사(장애인사역본부장)가 “문소현 총무야말로 온사랑합창단의 소금과 빛”이라며 “그분이 없었다면 온사랑합창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적극 추천했다. 문소현 총무는 20년 동안 온사랑합창단의 살림과 행정업무를 도맡아왔다. 청춘을 고스란히 온사랑합창단에 바쳤다. “사랑부 교사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삶을 그려주셨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녀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사랑합창단은 발달장애인 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각종 장애인 음악대회에서 수상경력이 풍성하고, 여러 기관과 학교 등지에서 공연과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연습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화음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그 어려운 일을 문소현 총무는 20년 동안 섬기고 있다. 말 안해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온사랑합창단과 함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모임을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온사랑합창단을 세우고 그들의 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곳이 진짜 천국이구나!’ 그녀가 사랑부에 처음 온 날

문소현 총무가 온누리교회에 처음 온 것은 중학생 시절이었다.

“작은 교회에 다니다가 이모 소개로 부모님과 함께 온누리교회에 왔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이 창세기 설교를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도 ‘설교가 이렇게 재밌고 감동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큰 교회 다니니까 귀찮게 붙잡는 사람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수



온사랑합창단원들과 부모, 교사들(왼쪽). 지난 20년 동안 온사랑합창단의 살림과 행정 업무를 도맡아온 문소현 총무(오른쪽).



있는 것도 좋았어요(웃음).”

처음에는 교회의 별다른 사역이나 봉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다.

“주일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는 게 좋고 편했는데 마음 한편에 ‘이제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일까?’ 하는 의문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을 지나는데 어떤 분이 ‘사랑부 교사하세요’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별다른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독촉(?)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문소현 총무는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 주일 사랑부 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천국을 경험했다.

“그때만 해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도 있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부 예배를 처음 드린 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진짜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천국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2002년, 문소현 총무가 23살 때였다. 한일월드컵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던 그해 문소현 총무는 사랑부 예배에서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을 맛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메시지 전해야 합니다’

문소현 총무는 사랑부와 예수사랑부(발달장애인 청년부 예배) 교사로 섬기면서 너무 행복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관심을 가졌다. 함께 기도하며 고민했다. 그 고

민이 깊어갈 즈음 또 하나의 설교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용조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금과 은이 없으니 장애인들이 성장하고 빛날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온사랑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놀고, 노래하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발달장애인 청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었을까?

“제가 처음 사랑부 예배를 드리던 날 경험한 천국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부 친구들의 찬양을 듣고 천국을 맛봤습니다. 그 천국을 만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온사랑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사역팀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문소현 총무가 시작했다. 아름다운 그녀의 고백이 하나 같이 주옥같다.

“저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일으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온사랑합창단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온사랑합창단의 음악적 기틀을 마련한 황화자 교수님과 제자분들, 특별히 온누리복지재단과의 협력으로 많은 대외사업에 공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문소현 총무는 온사랑합창단을 섬기면서 직업과 비전이 바뀌었다.

“어느 부모님이 저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원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한번 따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어머니께 받은 이메일입니다.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잘 돌봐주세요’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메일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고민과 기도를 정말 많이 한 끝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문소현 총무는 더욱 전문적으로 장애인들을 섬겨야겠다고 마음먹고 30대 중반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의 직장에 취직했다.

“제가 다니는 직장(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주간보호센터)에 이력서를 냈는데 다들 제 이력을 보고 의심 아닌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온사랑합창단 활동하면서 온누리복지재단 도움으로 대외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했는데 그 경력들을 보시고 ‘정말 이걸 봉사로 한 게 맞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웃음). 또 제가 30대 중반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니까 반신반의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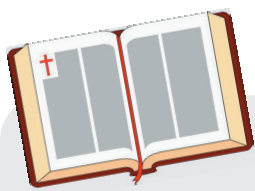
문소현 총무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업에 잘 적응했다. 그리고 올해 경사가 찾아왔다.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처음 사랑부에 올 때만 해도 장애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온사랑합창단을 전문적으로 돕고 싶어서 사회복지 공부를 했고, 센터장까지 되었습니다. ‘사랑부 교사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제 삶을 그려주셨습니다.”

문소현 총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교회 잘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주셨을까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의 건강한 몸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발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려나가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의: thgus111@hanmail.net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지 못 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은 과거에 대한 상처와 기억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한 기억은 잠재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실패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결심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과거의 실패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정에선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추궁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세 번씩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겔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교훈했는데도 베드로는 자만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베드로의 실패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제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늪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실패에 대한 기억, 상처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서 다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요한복음 21장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따라나섰

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생계를 해결하는 문제로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 평범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표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자책감, 절망감 때문입니다. 더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감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한 과거 실패의 기억들을 억누르려고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실패의 기억을 억누르려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를 따라 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자기 포기가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의 늪에 빠진 베드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갈망보다 피하고 싶은 마음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빈 그물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첫째,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깊은 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베드로는 심상치 않은 일을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년 전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계속 빈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관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베드로는 여느 때처럼 그물을 쏘고 있

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에 붙어 있는 쓰레기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고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실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말씀은 그물을 다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체리듬이 깨지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침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물리지 않는 법입니다. 또다시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눅 5:5)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적이고 거룩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냉소적인 마음으로 “한번 해 봅시다”는 마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심과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 계기는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그물이 비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빈 그물이 올라올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입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라며 교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깊은 실패와 좌절, 절망을 경험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실패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온 많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홀로 외로운 도망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그물이 비었을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내렸지만 계속 빈 채 올라왔을 때 베드로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90m 떨어진 곳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알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고 겹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드는 것으로 장면이 끝납니다.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으로 흥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년 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를 경험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숯불과 실패의 기억

둘째, 숯불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곳이 숯불 앞입니다. 예수님을 무고하게 불법적으로 재판에 넘기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베드로가 추위를 녹이려고 원수들의 틈에 섞여서 숯불에 자신의 몸을 녹이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피워 놓은 숯불을 보면서 자신의 실패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숯불의 이미지가 자신의 실패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고, 그의 양심을 뜨겁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셨지만, 숯불이라는 이미지에 베드로의 실패가 투영된 것입니다. 무언의 설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아침 먹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요리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배반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배반한 사람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4면에 계속》

엔젤트리, 그 아름다운 이야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작은 선물이 이웃들에게 정말 큰 힘을

2021년 온누리교회 엔젤트리에 사연 5,208건이 접수되었고, 그 모든 사연의 주인공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선물이 전달됐다. 온누리교회 엔젤트리가 이웃들에게 보낸 작은 선물이 이웃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 훈훈한 감사편지와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엔젤트리 사연 주인공들이 “엔젤트리 덕분에 훨씬 밝게 지내고 있다”면서 “선물을 보내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엔젤트리,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파를 녹이고 있다.



신애원 아이들이 보내온 2021 엔젤트리 감사편지.

엔젤트리 사연을 뽑고 선물을 보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기자가 선물을 직접 포장해서 배송해줬더니 1시간이 안 걸렸다. 기자가 뽑은 엔젤트리 사연은 “어머니에게 신발 한 켤레 선물하고 싶다”는 어느 재소자의 바람이었다. 선물이 잘 도착했는지, 신발이 어머니 마음에 들었는지 내심 궁금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

사회선교부에서 엔젤트리 사연의 주인공들이 보낸 감사편지와 인사를 본지에 전달했다. 기자가 뽑은 사연은 아니었지만 엔젤트리 사연 주인공들의 눈물 젖은 인사를 전해 들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1시간 정도의 수고와 그

리 비싸지 않은 돈으로 산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이 보낸 선물

엔젤트리 시즌에는 사회선교부에 항의 전화가 자주 온다. 주로 교도소에서 사연을 접수한 엔젤트리 주인공들의 항의가 많다. 자녀의 이름을 빌려 장난을 치거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선물을 보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엔젤트리의 취지와 사연 신청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항의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 김말숙 어르신(가명)도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사회선교부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평생 소원이 저와 함께 주일예배 드리는 것인데 제가 교도소에 오게 되어서 4년여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같이 손잡고 교회 갈 때 어머니가 들고 가실 가방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엔젤트리 사연을 읽어줬더니 김말숙 어르신이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교도소에 있는 이충성(가명) 형제는 어머니께 따뜻한 내의를 선물하고 싶었다. 엔젤트리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뤘다. 102세 어머니가 따뜻한 내의를 입고 좋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누리교회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어머니께 겨울 내의를 입혀드렸다는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셔서 선물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불효하는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요즘 한층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웃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사회선교부에 경기도 고양시 신애원에서 보낸 편지 40여 통이 도착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신애원은 기독교 보육원이다. 신애원에는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가정에서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내고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수년째 엔젤트리를 통해서 신애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다. 신애원 아이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꼭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은희(가명)는 멋진 책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저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데 저에게 값진 선물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멋진 성인이 되어서 제가 받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운동화를 선물 받은 찬영이(가명), 책을 선물 받은 성찬이(가명), 뜨개질 세트를 선물 받은 하영이(가명)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나눔에 감격하고, 본인들도 나눔을 잘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엔젤트리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시은(가명)입니다. 후원자님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화가 오거나 중요한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보지 못해서 바로 답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님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스마트워치를 갖게 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전화를 것 같고, 문자메시지가 올 것 같

아서 공부하다가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공부에 더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쓸 때마다 후원자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후원자님이 선물과 함께 보내주신 편지도 잘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길, 좋은 만남의 축복이 넘치길 축복해요’라는 메시지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편지에 그려주신 그림을 보면서

“정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풀렸습니다. 저에게 정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고, 피아노도칩니다. 이번엔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2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등을 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는 소나타와 코드를 배우고 있습니다. 코드를 다 외워야 해서 어렵지만, 코드 연주를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공

부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 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후원자님들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후원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 중입니다. 조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 박시은 올림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마지막 생명나눔을 위하여!”

‘헌혈 정년’ 앞둔 정영철 순장의 고백

정영철 순장(양천공동체)이 생애 마지막 헌혈을 앞두고 있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은 만 69세까지만 할 수 있다. 정영철 순장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올해 5월 ‘헌혈 정년’인 칠순을 맞는다. 지난 1월 14일 생명나눔의 기적으로 헌혈하고, 8주 후에야 다음 헌혈을 할 수 있어서 실제 정영철 순장에게 남은 헌혈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정영철 순장은 마지막까지 헌혈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이 때문에 걱정이 되었는데 헌혈의 집에 가니 혈압 수치도 잘 나오고 피도 아주 건강하고 좋다고 하더군요. 건강이나 체중 등의 문제로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이에도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정영철 순장은 지난해 온누리신문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기사에 ‘헌혈 전도사’로 소개된 적이 있다. 온누리신문에 정영철 순장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양천공동체 성도들이 잇따라 헌혈을 실천했다. 정영철 순장은 지난해처럼 성도들에게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싶어서 인터뷰에 응했다.

“사실 헌혈하는 게 뭐 그리 큰 자랑입니까? 제 이름 나가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다른 성도님들께 도전이 된다면야 이만큼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나이가 많은 저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헌혈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건

강한 피를 가진 젊은 청년들, 젊은 성도님들이 헌혈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면 더 큰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영철 순장이 헌혈을 권하는 이유가 있다. 헌혈이야말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난주 다녀온 헌혈의 집도 비치된 침대 절반 이상이 비어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생명나눔의 기적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혈만큼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는 좋은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석 달 남짓 남은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 기간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기를 당부합니다.”

정영철 순장은 생애 마지막 헌혈을 생명나눔의 기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마지막 헌혈을 위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 헌혈 주기를 계산해보니 마지막 헌혈을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로 마무리할 수 있겠더군요. 참 기쁘고 좋은 헌혈을 더욱 의미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헌혈하도록 독려해주신 교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달 뒤에 큰 문제 없이 마지막 헌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웃음).”



생애 마지막 헌혈을 앞두고 있는 정영철 순장(양천공동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혈자 수는 2019년 261만여 명, 2020년 243만여 명, 2021년 241만여 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헌혈량 감소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혈액 보유 현황을 보면 1월 21일(금) 기준 혈액 보유량이 3.6일분(O형 3일분, A형 3.5일분, B형 4.4일분, AB형 3.9일분)이다. ‘관심 단계’에 들어섰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 평균 5일분 이상이다.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 단계, 2일분 미만은 경계 단계, 1일

분 미만은 심각 단계다. 더 많은 관심과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헌혈로 혈액 보유량 부족 문제를 돕고자 실시한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피는 고귀하고 값진 생명이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받은 선물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 황혜정 성도

· 2022년 새해 첫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피로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Happy New Year!
/ 윤홍석 성도

· 작년 피로회복 캠페인 참여에 이어 두 번째로 헌혈하고 왔어요. 건강도 확인하고 보람도 있고 참 좋네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한 1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 류미희 성도

· 작년에 못 했는데 교회 다시 나오면서 예배 후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아요.
/ 이준영 성도

·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떠올리며 헌혈 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 정은영 성도

· 정말 오랜만에 참여한 헌혈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으로 인해, 거의 2년간 헌혈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명나눔의 기적’을 통해 헌혈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지은 성도

· 새해 첫 주일에배드리고 헌혈 참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2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 백운호 성도

· 86회 헌혈입니다.
/ 유재관 성도

·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신한서 성도

· 조그마한 저의 피가 한 명의 이웃에게 빨리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현구 성도

· 작은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이상욱 성도

· 이번 생명나눔의 기적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박예슬 성도

·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 장재원 성도

· 날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 최민성 성도

·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이웃을 위해 사

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의 나눔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헌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 지승호 성도

· 코로나19로 인해 저와 제 가정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교회를 통해 생명을 돕는데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 고안나 성도

· 때맞춰 아파트 단지로 출장 나온 헌혈 버스에서 지난해 혈소판 수치가 낮다고 헌혈 거부당하고 놀랐는데 올해는 다행히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기쁜 맘으로 함께!
/ 최경희 성도

·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요. 우리는 헌혈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 서예담 성도

·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강과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 조연희 성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안산M센터 허문자, 장경자 어르신의 기도제목



안산M센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허문자(왼쪽), 장경자(오른쪽) 어르신.

2021-20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대장정을 마쳤다. 온 누리에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득하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안산M센터 허문자(74세, 중국 길림성), 장경자(77세, 중국 길림성) 어르신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노규석 목사(안산M센터 담임)는 “두 어르신이 매일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른다”고 했을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참석했다.

허문자 어르신의 하루는 오전 4시에 시작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전에는 새벽기도회 시간이 5시 20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추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람 맞추지 않아도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난 허문자 어르신은 교회에서 공유해주는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한다. 그리고 교회에 간다. 예배당 앞쪽에 앉아

개인기도 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다. 성경책과 함께 늘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수첩에는 허문자 어르신의 기도제목, 설교 말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 교회에서 만난 사람 이름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기자의 이름을 묻더니 그 조그마한 수첩 말미에 한 자 한 자 눌러 적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떠올라 마음이 경건해졌다.

허문자 어르신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크게 다섯 가지다.

“사모님이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그래야 목사님이 사역을 편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CGNTV를 보면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세상의 악한 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공동체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안 간다고 거절해서 속상합

니다. 온누리공동체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이겨내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자 어르신에게는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첫 번째 새벽기도회다. 비슷한 연배,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온 허문자 어르신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장경자 어르신의 사연이 기구하다. 큰 아들은 지방에서 고생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교도소에 있다. 남편은 교회 가자고 하는 아내의 말을 비웃는다. 장경자 어르신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해야 살겠구나 싶어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족들의 사연, 녹록지 않은 생활 등 개인 기도제목이 많지만 장경자 어르신의 기도제목 1순위는 코로나19 종식이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는데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상처받고 좌절한 아들들이 빛을 보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도제목과 은혜

〈서초A공동체〉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기도에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그의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며 기쁨으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손금미 순장(누가4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매일 되게 하소서. 염려에 빠졌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각과 삶과 소유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했는지 멈추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의를 구하며 평강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 김윤선 집사(안드레4순)

“주님이 주신 보물들에 감사합니다. 물질이나 이 땅의 사라질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영희 부순장(안드레5순)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근심에 매여 사는 삶보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성령충만, 사랑의 실천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윤홍재 권사(안드레5순)

〈관악금천공동체 소망1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의 시효는 오늘 하루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갑시다.”

/ 공영환 형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말씀, 묵상, 큐티),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나눔, 섬김)를 세워나가겠습니다.”

/ 이현주 자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라 하셨으니, 현실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소서.”

/ 황태웅 형제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나를 맞추어가기. 기도로 하나님과 나의 삶을 나누기. 헌금이나 봉사로 하나님과 함께 소유를 나누기. 이런 삶으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 김민혜 자매

〈영등포구로공동체 C다락방 1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 남경아 집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누군가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기도를 함으로 영혼육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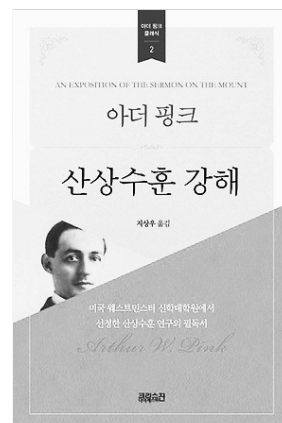
/ 정현정 권사

“이제껏 나만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이후의 삶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다짐합니다. 이 기도가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김성진 집사

새벽기도회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심



〈산상수훈 강해〉

아더 핑크 저 | CH북스
| 21,000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성경은 완독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완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이 정도 말씀만 남긴 것은 은혜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씀은 꼭 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영상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꼭 읽고 알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산상수훈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40일 동안 산상수훈 말씀이 선포되었다. 산상수훈 말씀은 딱 40일만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진심이다. 그래서 새벽기도회를 마친 이후에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때 도움이 될 유익한 책이 있어 소개한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지은 〈산상수훈 강해〉다.

이 책에는 산상수훈에 대한 깊이 있는 영적 통찰과 묵상이 담겨있다. 새신자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 있는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들을 신학적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게다가 산상수훈을 통한 예수님의 진심을 소주제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마주한 상황마다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중요한 단어는 굵게 되어 있거나 큰 글자로 쓰여 있어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상수훈 말씀을 볼 때마다 꼭 같이 읽어보기를 소망한다.

/ 윤준석 목사(수원온누리교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1월 17일 월요일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1~6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 1~2절에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공의로운 사법적인 심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심판자의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자가 되는 모습은 어떨까요?

첫째, 다른 사람의 동기를 최악의 경우로 추정해서 판단합니다.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기에 저런 고난을 겪냐’라는 시각으로 추

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태, 자라온 과정,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동기를 최악으로 추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최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화와 관습,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

신의 판단이 100% 옳다고 여기면 심판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누가 더 미래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면 그것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 대하여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고집이 심판자가 됩니다.

셋째,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려면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세운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도 판단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어야 합니다. 셋째, 온유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문제를 지적받고 타인이 심판자처럼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판단 속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판단 받고 정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한 동기를 악하게 바꾸는 판단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때로 오해받고, 정죄 받고, 모함을 받을 때 해명하기 위해 공격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단의 문제는 분명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눈의 티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8일 화요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7~12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 7~8절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쉽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기도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구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햇빛과 단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스스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차원에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찾지 않으면 구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스스로 찾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구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사람은 문을 두드립니다. 자신 밖의 영역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쁜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가 응답 되는 영역입니다.

다. 대표적인 예가 영혼 구원입니다. 중풍 병자를 데려와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모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도록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모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알고 구하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찾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이후 황금률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마 7:12).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마 7:11).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그 대접을 받은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므로 응답받은 체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의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1월 19일 수요일

좁은 문과 넓은 문

마태복음 7:13~14

이재훈 목사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결론에 이릅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택과 사단에 속한 선택입니다. 세 가지 표현 중 첫 번째는 ‘두 개의 문’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나무’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집’입니다. 바위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가 나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한 길이라 찾는 사람이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따르는 길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공동체 안

에 살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소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시며, 열린 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좁은 문이 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 오라고 하셨는데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은 속이 좁다, 편견이다,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일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셋째, 혼자 들어가야 해서 좁은 문입니다. 여럿이, 가족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대표로 나만 그 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

리는 한 사람씩 천국의 십사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넷째, 급진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열린 문이 닫히는 때가 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땅에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 문을 택해야 해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좁은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구원의 문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가면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고 만족을 누리는 곳에는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 1월 20일 목요일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마태복음 7:15~21

이재훈 목사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겉은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춰진 인격조차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지를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새사람이 될 때 분리되었던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열매 맺는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면의 인격과 겉으로 나타나는 성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잎과 가지가 무성하다고 해서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물가에 든든히 심어져야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란 우리 내면의 인격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은밀

함이 뿌리처럼 깊이 심겨야 합니다. 열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21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기까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의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면에서 밖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고 느끼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큐티 시간과 기도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 있는 고백인가’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진실성 없는 거짓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열된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써 우리가 고백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헛된 고백, 헛된 행함, 헛된 봉사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고, 뿌리가 물가에 심겨 있을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좋은 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 1월 21일 금요일

바위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21~27

이재훈 목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신앙고백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적 구원과 진리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노력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회퍼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를 파괴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 평가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면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심판의 날에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지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잘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며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바위와 모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차이입니다. 입술의 고백만 수십

년 있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일 수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한 경험이 있는 신앙은 바위 위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왔을 때 말씀대로 행한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종으로 다져진 바위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매일의 선택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순종으로 다져진 신앙 바위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언젠가 우리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지,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인지 평가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순종으로 다져진 신앙만이 마지막 날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 전에 재난이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병, 전쟁, 지진을 말씀하셨는데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순예배나 교회 모임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민감한 사안이고,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서 부모님하고도 조심하는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대 정치색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정치화하는 것은 불쾌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지체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목사님!”

순예배나 교회 지체들과의 모임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과 연령대가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견해와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서로 다른 입장일지라도 비난하고 정치화하기보다 서로 다른 것이라며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 입장이 각양각색

이었다. 열두 제자 중에 마태와 시몬이 있었다. 마태는 동족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세금징수원이었다. 로마제국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로 불렸다. 이에 반해 시몬은 ‘셀롯인 시몬’이라고 불리는데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제국에 무력으로 대항해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였다. 마태는 로마의 세리였고, 시몬은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원이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 마태와 시몬은 정반대다. 어찌 보면 당대 가장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주님이 일부러 가장 대립하고 분열할 것 같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모델로 사용하셨다.

세상은 이념과 목적을 쫓아서, 혹은 자기 신분과 취향을 쫓아서 정치 사회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갈라진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

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공동체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8-29).

초대교회 시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민족적으로 상극이다. 종과 주인은 그 신분 때문에 한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모두를 ‘형제자매’라 부른다. 민족, 신분, 학식, 정치적 견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 그들이 사는 모습과 출신이 달라도 모두 하나의 공통점,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정치적 견해가 정반대인 사람을 교회 모임에서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실재를 테스트할 좋은 기회다. ‘그들과 정

치적 견해가 다름에도 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포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다. 만약 나와 정치적 견해가 정반대인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회에서는 되도록 정치색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정치화하는 안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더라도 이 내용을 기억한다면 크게 요동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는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고민, 질문에 대해 대학청년부 목회자들이 조언과 격려를 건네는 코너이다. 고민 및 질문 보내실 곳: joo@onnuri.org



이승민 목사
(갈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배우자의 경제 능력보다 달란트를 먼저 수용하라!

“아내와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할 계획이라고 했고, 서로 합의 했습니다. 아내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의 경제활동이나 연봉이 저보다 많은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아내의 연봉이 저보다 높은 것이 간혹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겠지만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는 느낌이 듭니다. 재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면 가정에서 나의 위치가 어땠을지 생각하곤 합니다. 수입의 차이가 가정에서 위계의 차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끔 힘이 듭니다.”

많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맞벌이 형태나 기간 등이 다양하다. 결혼 이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계속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간혹 맞벌이 부부 중에 아내의 급여가 남편보다 조금 혹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종종 있다. 결혼 이후 발생하는 수입은 함께 관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될 수 있지만, 남편이 심리적으로 힘들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남자의 역할에 대한

고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그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심리적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 높은 경우 위축감이 더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결혼 전 단계에서 고민했던 결혼 결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다. 결혼 전 커플은 정말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의한다.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게 된다. 결혼식장에서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결혼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 예측 가능한 것들도 많다. 아내의 사회생활과 연봉의 수준, 자신의 연봉 수준과 차이를 포함해서 말이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전문직이고 수입이 남편보다 높았으며, 당연히 결혼 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결혼을 결심했을 것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다. 결혼 이후 연봉 차이로 위축되더라도 ‘나의 선택’이고, ‘부부의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인정과 수용의 과정을 거쳤다면 용기 내서 아내와 진지하게 자신의 느낌을 나눌 필요가 있다.

부부 사이 많은 대화 주제가 있지만, 돈에 관한 이야기는 힘든 주제다. 특히 아내의 수입이 더 많음으로 인해 남편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된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아내가 대화하면서 사용하는 단어 나 문장 중에 재정과 관련해서 남편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가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내가 호의로 하는 “이번에는 내가 지불할게!”, “당신 어렵잖아” 등의 말과 단어들이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비관적으로 자극하는 경우가 있다. 무시하는 의도를 갖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남편은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풍랑을 진술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편안해질 때까지 천천히,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들어줄 필요가 있다. 대화 중에 갈등의 ‘트리거(Trigger)’로 작용하는 단어 나 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여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표하면 더욱 견고한 부부 관계가 될 것이다.

연봉 차이가 부부 관계의 서열을 결정하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간혹 개인 삶의 성장 과정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서 은연중에 돈이 권력이고, 힘이라는 의식이 마음에 자리 잡기도 한다. 돈에 관한 힘과 서열 의식으로 결혼과 부부를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는 이것을 떠나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 혹시라도 아내의 더 높은 연봉으로 인해 위축되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돈에 대한 신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써 내려가 보는 것도 좋다. 하고 싶은 말들이 적힌 종이를 들고 아내와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이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에게 필요하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가 있다. 이 달란트로 인해서 서로 연봉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경제 능력보다 배우자의 달란트를 먼저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경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서로의 기질과 성향, 달란트가 다르다. 이것으로 인해서 심리적 위축과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배우자도 원하지 않는다. 심리적 열등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배우자와 대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열등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등 자신의 과거를 탐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예수의 명령과 우리의 단순한 복종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Nachfolge

「크리스챤리티 투데이」 선정, 20세기 최고의 책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를 회복하라!”
강영찬 · 김기석 · 장영봉 · 김태권 추천

주요인: 서한

〈나를 따르라〉
디트리히 본회퍼 저 | 복있는사람
| 17,000원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행위는 헛되다”(종교개혁자 루터).
“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괴테의 〈파우스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사도 바울).
인간은 철저한 좌절과 절망의 존재이다.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친다 한들 밀려오는 파도를 거스를 수 없다. 제아무리 높이 도약해도 하늘에 닿을 수 없고, 결국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선(善)은 우리에게 없다. 때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지만, 선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은혜로 노래한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

오늘 소개하는 책 〈나를 따르라〉의 저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고 변질하는 우리들의 ‘값싼 은혜’를 지적하면서 말이다.

독일 태생 본회퍼는 1937년 31세에 책 〈나를 따르라〉를 저술했다. 당시 독일은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할 정도로 히틀러와 그 정권을 지지하던 국가였다. 히틀러가 아닌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선포했던 그는 결국 나치 정권의 폭압에 1945년 39세 나이로 독일 플로센부르크 강제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안전한 길이 아니라 순전한 길을 택한 결과였다. 그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값싼 은혜’는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가리킨다. 적당하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신앙의 모습을 말한다. 회개 없이 용서만 구하고, 신앙 고백 없이 성찬에만 참여하고, 통회함이 없는데 죄를 사해주는 문자 그대로 값싼 은혜로 구하는 은혜이다. 본회퍼는 그 값싼 은혜를 ‘우리 교회의 숙적’이라 말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온실 속의 파릇함으로 휴양하는 것이 아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거친 파도를 넘어 물 위로 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발자국으로 응답해야 한다.

저자는 이 책 세 번째 주제에서 그 한 발자국의 단순한 복종을 설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과 분석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야지. 하지만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마음을 지키면서 균형 있게 구해봐야겠다’ 등의 생각을 저자는 “단순한 복종을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은 각 사람이 홀로 받는 것이

다. 저자는 그 부르심이 각 사람을 단독자로 만든다고 전한다. 누구도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복종이 동반되어야 한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강압이 아니다. 제자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허락의 선포요, 먼저 모든 길에 앞장서겠다는 격려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다.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 사람에게도,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온다는 사람에게도 강제하지 않으셨다. 제자는 그 부르심에 복종의 행위로 응답한다. 긴말하지 않는다. 왜 복종하는가? 본회퍼는 복종의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따라가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것이다. 다른 해석은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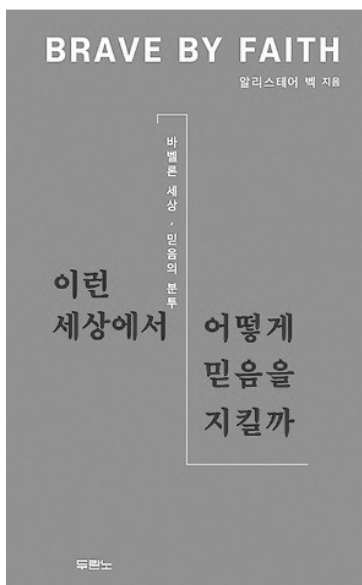
“나를 따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



최중현 전도사
(허브대학부)

두란노 신간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알리스테어 벡 저 | 두란노 | 12,000원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다. 다니엘과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믿음의 용기를 부여하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믿음의 용기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 크리스천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세상에서 이 말을 내뱉기가 예전 같지 않다.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크리스천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 많은 크리스천이 교회와 기독교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밝히기를 꺼리며 숨는 이들도 있다.

세상에 설 용기를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이 나왔다. 알리스테어 벡이 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다. 이 책은 다니엘서 1-7장을 토대로 썼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벨론 세상을 헤쳐나갈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현실적인 직언을 아끼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문화에 점점 더 세계 밀침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면의 진실 역시 확실하게 알려준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시련의 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드시며 용기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다.

이 책의 핵심은 ‘다니엘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다. 다니엘과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믿음의 용기를 부여하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믿음의 용기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32년 동안 승려 70여 명에게 세례 준 ‘칼 라이헬트 선교사’



라이헬트 선교사는 승려들과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자 아예 머리를 깎고 도풍산 인근의 절로 들어갔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본국 선교본부에서 세 차례나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칼 라이헬트 선교사는 “나는 변질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내 선교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본국과의 연락이 끊겼는데 칼 라이헬트 선교사는 묵묵히 승려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32년 동안 70여 명의 승려가 세례를 받았다.

십자가를 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교회라고 믿기 어려운 도풍산교회에 칼 라이헬트 선교사의 묘비가 있다. 그의 묘비에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적혀있다.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불교도 전도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 의하면 이슬람, 힌두교보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들이 불교도라고 한다.

칼 라이헬트 선교사는 32년 동안 머리 깎고 불교인들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홍콩에 팔각정 모양의 도풍산교회가 지금도 남아서 그의 신앙과 선교 열정을 후세에 알리고 있다.

노르웨이 출신 칼 라이헬트 선교사는 불교 수도승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1929년 홍콩에 도착했다. 홍콩에 자리 잡은 칼 라이헬트 선교사의 행보가 독특했다. 승려들에게 불교를 배우기 시작했다. 칼

“QT하고 고구마 먹자!”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온누리교회 차세대에 QT 열풍이 불고 있다.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 (이하 ‘QT하고 고구마먹자’) 덕분에이다.

‘QT하고 고구마먹자’는 방학 동안 차세대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QT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2,582가정이 참여하고 있다(서빙고, 양재 기준).

박세현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은 “QT하고 고구마먹자 프로그램 덕분에 더 재미있게 QT를 하게 된 것 같다”면서 “부모님과 함께 QT하

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겁다”고 고백했다.

‘QT하고 고구마먹자’는 2월 3일(목)까지 이어진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QT하고, 말씀을 암송한 날짜를 계산해서 고구마 간식을 보내준다. 가족 QT모임을 포함해서 총 24번 할 수 있다. 말씀 암송은 ‘말랑말랑 톨레레게 암송카드’를 활용한다. 톨레레게 암송카드 케이스 뒷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세상의 소금과 빛 되겠습니다!”

청년부 더원집회, 대학부 연합컨퍼런스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더원집회가 지난 1월 6일부터 8일, 대학부 연합컨퍼런스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청년부 리더십 컨퍼런스 더원집회에서는 김승수 목사 ‘부르심’, 박종길 목사 ‘리더십’, 이재훈 담임목사 ‘비전’을 주제로 설교했다. 선택 강

의에서는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서윤화 목사(아름다운 피켓 대표), 정진호 장로(더웰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강의했다. 하루 평균 청년 700여 명이 참석했다(6일 723명, 7일 710명, 8일 675명).

대학부 연합컨퍼런스에서는 이상준 목사 ‘믿음을 따라 GO’, 14일 이

서진 목사 ‘소망을 따라 GO’, 15일 이재훈 담임목사 ‘사랑을 따라 GO’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토크콘서트에는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교회), 조성돈 교수(라이프호프 대표), 이호천 대표(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하루 평균 대학부 청년 720여 명이 참석했다(13일 834명, 14일 654명, 15일 669명).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월 5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남성들의 회복을 돕고, 아버지들을 바로 세우는 프로그램이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문의: 010-3135-2865

일대일양육자반 수강생 모집

일대일양육자반 서빙고 화요 오후 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2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월 15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일대일양육자반에서는 ‘예수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충만함 삶’, ‘시름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9265-1532

2022 겨울 경배와찬양학교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 모집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에서 ‘2022 겨울 경배와찬양학교 및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가 ‘고난의 축복과 정치기의 삶’을 주제로 1월 24일(월)부터 30일(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22 겨울 경배와찬양학교 및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는 주제 강의, 침묵기도, 축제, 그룹모임, 개인 묵상, 만국을 향하여, 특별강의, 파송예배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하스테반 선교사가 인도한다. 한국 시

각으로 1월 24일(월) 오후 8시부터 11시, 1월 25일(화)부터 29일(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1월 30일(주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린다.

2022 겨울 경배와찬양학교 및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이메일(7000school@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훈련비는 자율헌금이고,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동시통역이 지원된다. 문의: 02-796-9700

홈페이지: www.anm21.org

온비아 갈라디아서 수강생 모집

일요 저녁반, 월요 오전/저녁반, 목요 저녁반, 토요 오전반

온비아 갈라디아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요 저녁반, 월요 오전반, 월요 저녁반, 목요 저녁반, 토요 오전반이 개강한다. 일요 저녁반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오후 7시 30분, 월요 오전반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오전 10시, 월요 저녁반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오후 7시 30분, 목요 저녁반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오후 7시 30분, 토요 오전

반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비아 갈라디아서 과정에서는 ‘복음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시다’, ‘복음 변론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다’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11만 5천 원

문의: 010-3798-7948

재능기부 선교봉사자 300여 명 동참

‘온-커넥트’와 ‘카카오톡 채널’로 선교사와 연결

온누리교회 성도 300여 명이 재능기부로 선교하겠다고 약속했다. 2000선교본부는 온라인 선교플랫폼 ‘온-커넥트’와 ‘카카오톡 채널’ 재능기부 선교봉사자들과 선교사들을 연결할 예정이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라인 선교플랫폼 온-커넥트에 가입하면 된다.

박시형 목사(2000선교본부)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선교

할 수 있다”면서 “망설이지 말고 모두 함께 선교하자”고 권면했다.

손현석 총무(관악교전공동체)는 “프린터나 복사기를 고치는 일로 선교와 선교사들을 돕겠다”면서 “모두 함께 자신의 달란트와 재능으로 선교하자”고 제안했다.



민성기 선교사를 위한 기도요청

폐 이식 수술받고 회복 중

캄보디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한국으로 긴급 후송된 민성기 선교사(캄보디아)가 지난 1월 14일 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 11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오랜 중환자실 생활로 회복이 더딘 상태다. 최윤숙 선교사는 “이식한 폐가 감염되지 않도록, 심장이 회복되도록, 심장 증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떡국 떡 판매

1월 22~23일 주문접수, 29~30일 판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 설날 떡국 떡 및 농산물(쌀, 서리태콩, 재래김 등)을 판매한다. 1월 22일(토)과 23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데스크에서 주문하고, 29일(토)과 30일(주일) 수령하면 된다. 공동체 단체채팅방을 이용해서 주문해도 된다. 현장판매도 한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떡국 떡 및 농산물 판

매 수익금은 전액 농어촌교회가 섬기는 해외근로자, 결손가정 어린이, 노후 성전 건축에 쓰일 예정이다.

이영근 장로(서빙고 농어촌선교팀)는 “농어촌교회를 돕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후원과 관심,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온누리 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서빙고, 양재)에서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다. 2월 6일까지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참조), 소속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레지던트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인턴 면접

상담 100시간 미만 지원가능),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인턴 4학기, 레지던트 2학기 과정이고, 비용은 학기 당 30만 원이다. 매주 슈퍼비전 및 참관, 학기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서빙고 02-793-2998

양재 02-570-7536

1월 세례자

■서빙고

김미선 550809
문난희 650223
박상혜 571111
박영미 940222
신명희 470129
양지혜 840218
이재우 890705
이준우 590113
임효나 820314
홍순남 530813
홍인화 620706
입교
명채현 030918
유아
김세환 190930
김태균 김 수
김소윤 210127
김중연 이사랑
김하준 181122

김석원 오혜정
손예준 210831
손호영 성연은
오유민 200619
오금석 우인혜
이은호 210806
이두란 이은경
이준우 201101
이규진 김소연
이하이 191010
이태윤 한지연
최유진 190901
최형규 김보경
하주영 200901
하성호 이상은

■양재

기효영 790920
박춘란 670829
유아

김리안 201106
김근영 조한미
김서진 191115
김재율 김세미
김하윤 191029
김범준 윤혜영
박서하 200311
박정환 박주은
신세진 200828
신영진 조아라
심예은 200217
심우곤 송은미
이아진 200220
이희재 안지영
이주안 190123
이준원 김예지
이하담 200929
이상현 임은선
장하영 201020
장 욱 김향숙

■대학청년부

SNS
김다혜 911106
김진규 880706
이예원 871004
유아
김로하 201022
김우창 유송욱

W
정의진 900617

■여호수아

이정혜 880626
박근우 900109
유아
서지안 20210402
서우정 김남희
임태오 20210127
임동민 송슬아

교회 통일교육,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성경적 통일교육 위한 ‘통일위원회’의 제안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는 성경적 통일관을 정립하고 한반도 복음통일에 헌신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9월에 설립되었다. 처음에 사회선교본부 소속으로 시작되었다가 현재는 당회운영위의 분과위로 운영되고 있다.

통일위원회는 2018년부터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18~2019년 통일아카데미, 2021년 온누리통

일학교). 또 연합세미나와 분기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년 및 차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캠페션과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등 유관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연합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있다.

2022년 통일위원회에서는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온누리통일학교 기본과정 2기’(온라인), 4월 ‘청년 통일스케치 콘서트’, 6월 ‘대의

협력 학술포럼’ 개최,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온누리통일학교 심화과정’, 11월 ‘대의 협력 학술포럼’ 개최 등의 사역을 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통일교육 전문가와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온라인 워크숍도 진행한다. 매주 월요일에는 통일기도회가 이어진다.

통일위원회 전순영 총괄팀장이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논평’에서 〈한국교회 ‘복음통일’ 교

육의 현황과 방향성〉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전순영 팀장은 “교회 통일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교회 통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전순영 팀장의 논평 요약.

문의: 010-5792-329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논평

한국교회 ‘복음통일’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전순영 팀장
(통일위원회 총괄
팀장, 기독교통일지도
자학 박사)

한반도가 분단된 지 73년이 지났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가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민족주의보다 개인주의 정서에 익숙하고, 3대 세습과 핵 개발, 기근과 인권유린 같은 부정적 뉴스만 접해온 청년 이하 세대에게 북한은 그저 ‘가난한 이웃 나라’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만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자명하다.

1990년대 이후 통일교육은 북한 식량 위기를 계기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 외에 시민단체라는 행위 주체의 참여로 다변화되었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공공영역의 통일교육을 담당해왔고, 지자체와 청소년단체, 시민단체들이 민간 차원의 통일교육을 실행해왔다. 문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통일정책이 변동되면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에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통일이 이념화된 주제로 분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현상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이념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교회 통일교육은 기독교 통일담론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해왔다. 기독교 통일담론을 신학적 기초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분류하면, 한국 교회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통일담론 키워드는 각각 ‘복음통일’과 ‘평화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진영의 통일담론은 통일의 목적이 북한선교에 있다고 보고 북한교회 재건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진보진영의 통일담론은 탈분단 평화와 민주 시민의식의 함양에 주안점을 둔다. ‘복음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성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북한 이해와 통일 준비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선교사 양성’이다. 보고에서는 지면상 연구범위를 제한해서 ‘복음통일 교육’, 그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의 북한 이해와 통일 준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교회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 통일교육의 현황

북한선교와 복음 통일에 초점을 둔 통일교육을 살펴보면, 그 시초는 1977년 김창인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한 ‘기독교북한선교회’가 1978년부터 간헐적으로 실시한 ‘북한선교대성회’와 ‘강연회’라 할 수 있다. 커리큘럼을 갖춘 기독교계 첫 통일교육기관이자 대표적 기관은 1998년 설립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통일선교대학’이다. 2010년까지 일반과정 24차례, 특별심화과정 9차례를 거쳐 2,1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단 차원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선교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교회 연합교육으로는 할렐루야교회, 남서울교회, 지구촌교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일선교아카데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북한선교 역사가 오래된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교육은 통일선교사 역 중에서도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송실대에서 실시한 통일선교사역 실태조사에서 통일선교사역을 하는 교회가 28%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자체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했다. 그 이전인 2017년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교회나 기독교계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95.8%를 차지했다.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3.3%인 것에 비하면 수요와 공급 면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는 셈이다.

교회 통일교육의 문제점

2014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는 ‘교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검증된 전문 강사진의 부족, 수도권 편중과 지방 소외 현상, 이념 갈등, 훈련 수료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사후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

교회 통일교육은 북한 전문가들, 선교사들, 탈북민들을 초청하는 강의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에 비해 체계적인 통일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위 ‘통일교육 전문 강사’ 인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중복적으로 실시되었고, 일부 보수교회에서는 강사들의 ‘사상성’에 대한 내부 검증과 이념 갈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용 강사가 더욱 제한되었고, 이는 교육 내용의 축소와 중복, 수강 인원의 감소, 심한 경우 통일교육 프로그램 폐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 교회는 통일·북한선교에 대한 정보제공, 통일·북한선교 헌신자 양성, 교회 내 공감대 확산, 이념 갈등 해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들의 상당 부분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

이 교회 안팎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통일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통일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교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이 갖는 중요성과 과급력, 선교 가능성, 사회와 교회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제언

교회 통일교육도 사회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북한 동향과 국제정세, 정부의 통일정책 운용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의 통일선교가 강조해야 할 사역 방향의 1순위가 ‘다음세대를 위한 통일·북한선교 교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선교사역뿐 아니라 비즈니스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들의 산실이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이 정치이념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진실, 평화, 정의, 사랑 같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지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독교 세계관, 북한 이해, 인권, 민주시민, 평화 등의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경적 통일교육의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면, 현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예정인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차세대 대상의 기독교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유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기독교 통일교육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연합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교회 통일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장로칼럼

〈산상 설교〉와 팔복



박봉래 장로
(김포공동체)

예수를 가리켜 ‘말씀의 화가’라고 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소리와 향기가 있다. 거기에는 풍경이 등장하고 인간과 동물도 존재한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시각에 호소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기 쉽게 전파했다. 예수님의 여러 설교 중에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은 명작 중의 명작이다.

덴마크 크리스티앙 4세 성당에는 칼 하인리히 블로흐(Carl Heinrich Bloch, 1834-1890)가 그린 〈산상 설교〉가 있다.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작품에서는 예수께서 산 위에 있는 바위에 앉아 말씀하신다. 사랑을 상징하는 붉은색 속옷과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 겹옷을 걸치고 계신다. 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첫 번째는 바우는 복이요, 나머지는 채우는 복이다. 실행하여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셨다. 그분은 사랑을 선포하셨고, 의로운 이나 불의한 이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할 때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칼 하인리히 블로흐의 〈산상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른쪽 꼭지로 하늘을 가리키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마 11:28).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잡다한 한과 원망, 분노와 상처를 예수는 당신께로 가져와 다 쏟아놓고 빈 마음이 되라 하신다. 빈 마음의 깨끗하고 겸손한 삶이 천국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청중의 반응도 다양하다. 시선을 모

아 경청하는 사람들, 놀라는 사람들, 곰곰이 되새기는 사람도 있다. 집중하지 못하고 탄성을 피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께서 앉으신 반석 아래에 기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누구일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절실하게 두 손을 모은 이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이는 청하면 찾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이의 발치에는 물병이 있고, 옷은 반쯤 벗겨져 있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화가의 가난과 고통은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는 도구였다. 칼 하인리히 블로흐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이다. 부모의 바람대로 해군 장교로 입대했지만, 그의 관심은 그림뿐이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다니며 렘브란트의 작품을 접했고 운명조차 렘브란트를 닮아 아내를 일찍 잃었다. 그 아픔을 종교화로 승화시켰다. 칼 하인리히 블로흐는 예수의 생애를 23개 작품으로 남겼다.

산상 설교의 핵심은 팔복이다. 팔복은 그리스천이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 모습이며 성품이다. 온누리교회는 2022년을 산상 설교로 시작하고 있다. 말씀과 그림을 곁들이면서 내 안에는 어떤 팔복의 성품이 있을까 하나씩 끄집어내 살펴본다. 부족하기만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말씀이 있어 감사하다. ‘망했다. 힘들다. 어렵다’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과 말씀을 꼭 붙잡는 나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팔복의 성품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아버지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아버지 가신지도 벌써 20여 일이 넘 어간다. 삶의 소망을 잃은 육체의 껍질을 벗고 고통이 없는 천상의 새 거처로 옮기신 것이 아버지 당신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은혜이지만, 내 뿌리가 잘려나간 것 같은 허함은 마음에 큰 상실의 구멍을 남긴다. 글 한 줄 써지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모처럼 벗고 함께 강릉 겨울 바다를 보러 나갔다. 하얀 포말로 부서지는 잔잔한 파도와 코발트 빛의 시리도록 아름다운 푸른 바다가 가슴으로 들어온다. 자연의 경이로움은 늘 내 틀에 갇힌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활력을 준다. 창조주의 위대함과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고, 내 설움에 겨워 밀쳐놓았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며 비로소 평안과 감사가 나를 휩싼다.

아버지는 워낙 욕심 없이 사셨던 분이다. 사망신고 한 장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한 생이 깨끗이 정리된 터라 따로 상속받을 유산을 기대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십수 년 전, 한창 평창 올림픽 붐을 타고 기획 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던 때 그럴듯한 감언이설에 속아 구분등기도 할 수 없는 1만여 평의 산에 수십 명이 연명으로 등기된 땅 중에 200여 평의 지분 한 필지가 유일한 아버지 소유의 유산으로 남겨졌다. 나한테 언젠가 열핏 그 땅 이야기를 비치시키는 하였던 것 같다. 절대 그런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라 신신당부 드렸는데도 순진하신 양반이 뒤에 속아 넘어가셨는지 지금도 공시지가가 50여만 원 남짓한 땅을 당시 1,500여만 원이나 주고 매입하셨다. 이후 평창 올림픽 특수를 꿈꾸며 큰 재산이나 일구신 듯 대견해 하시

고 행복해하셨던 기억이 난다. 사기는 당했을 망정 한동안 그 땅으로 인해 희망의 꿈을 꾸며 행복해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름 그 값어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본다.

어찌 보면 어리숙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시고, 남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사셨던 아버지의 그 천진스러움이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가시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긍정의 힘과 늘 꿈꾸셨던 활기찬 희망의 기운이 대를 넘어 내 자식들에게도 상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께 마지막 편지 몇 줄을 남겨 본다.

“아버지! 앨범을 뒤적이며 아버지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곳곳에 남겨진 아버지와 추억들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잘못했을 때라도 차분히 타일러서 스스로 반성하게 하시고, 늘 믿어주시고, 충만한 사랑의 울타리로 보호해주셨던 아버지! 끝없는 제 자존감과 긍정의 에너지는 아버지께 받은 유전자인 것 같네요. 평생을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의 자랑이셨던 아버지! 귀한 사랑의 유산과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도리를 유훈으로 남겨주시고 가신 아버지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살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존경받고 사셨는지 몸소 보여주신 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아버지셨던 축복이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너무 행복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슬퍼하지 않을게요. 아버지처럼 마주 웃으며 손 흔들고 인사를 고평칩니다. 아름다운 낙원에서 엄마와 함께 평소처럼 알콩달콩 편히 쉬소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하는 딸 은미 드림

신앙에세이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사회선교의 기본 정신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함께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모든 사역의 기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쁘게 사역하셨지만 항상 사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었다. 예수님은 일로써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관계로써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당위성을 얻으셨다. 사회선교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사역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사역이다. 따라서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모든 사역의 첫 발걸음이다. 마리아가 되어야 마르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역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사회선교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것이다.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역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함께 기뻐하면서 섬기는 사역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갈등하면서 섬기는 사역 현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바로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웃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친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해야 한다. 인격적 관계가 결여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죄인

을 불쌍하게만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다. 선교지에서 원주민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한다. 사회선교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함께 한다는 것은 품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어 주셨다.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 주셨다. 우리도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의 주인으로도 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함께 섬기고 있는 동역자들을 품어줘야 한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롬 12:15) 서로를 품어줘야 한다. 생각이 다르고 섬기는 방식이 달라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함께 일해야 한다. 어려운 이웃들을 단순히 사역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셨듯이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줘야 한다. 조건없이 품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함께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

셋째,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섬김의 원동력은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요, 은혜의 힘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육신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셨다(요일 4:8). 우리도 사랑이어야 한다. 동역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고전 13:3). 사랑이 없다면 사회선교의 모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회선교는 ‘함께’를 지향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다시 새롭게 소명을 따라

실패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깊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장면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2002년 하용조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하용조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목사님의 건강이나 신변의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일정이 매우 고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비자 때문에 여러 날을 대기하고, UN기를 빌려 타고 가는 여정이 힘들어서 제가 피곤했다 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디서 꺾으셨는지 꽃도 한송이 놓아두셨습니다. 마치 집에서 준비한 식사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황송했는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제가 꼭 먼저 일어나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일어나셔서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참 멋진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무언의 설교가 담겨 있었습니다. 빈 그릇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떠올리게 하였고, 숯불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의 질문과 교훈 그리고 회복

셋째, 세 번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 연속 던지실 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향하여 “너는 반석과 같은 신앙고백의 사람이 되어라. 이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며 부여해 주

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제자 이전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이것 또한 실패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늘 베드로라고 부르시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둘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늘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방식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고, 그렇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늘 나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을 때 자신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 원인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늘 자신이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베드로의 실패 원인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고, 베드로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씻어주듯이 세 번의 사랑을 질문하시며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판정을 맡겼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17절).

자신의 모든 실패를 아시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겸손이요, 진실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슬픔이 담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진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회개에 이르렀고,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너무 쉽게 실패하는 사랑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그 진실을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가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소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 더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모든 제자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절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도 치유하시고,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뿌리 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회복시켜서 그분을 따르는 소명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손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처럼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봉사자 모집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나눔, 사회화합, 한누리사역

사회선교부에서 봉사자(동역자)를 모집한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소외된 약자를 위한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긍휼 선교사역을 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월 신설됐다.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나눔, 사회화합, 한누리사역 영역 25개 사역팀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통합팀	사역팀	사역 소개
사회책임	일.하.세.	일터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역(특강 및 일.하.세.아카데미)
	청년벤처	청년 벤처사업팀 발굴, 멘토링 및 어벤처스 대회 진행/주관
	경제정의	성경적 재정관 연구 및 부채상담 지원
	생명과환경	생명·환경을 살리는 창조질서회복사역
	나그네돌봄사역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 이주민, 탈북민 돌봄사역
사회봉사	서빙고 농어촌선교	서빙고 - 농어촌교회 지원 및 농어촌해외근로자, 다문화, 결손아동선교사역
	양재 농어촌선교	양재 -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재정후원, 재능기부 등)
	서빙고 이웃사랑	서빙고 - 구제금융, 독거노인 섬김,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양재 이웃사랑	양재 - 구제금융, 청소년쉼터, 노숙인교회 지원,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서울역희망공동체	거동이 불편한 동자동 쪽방 주민의 말벗과 돌봄사역
	남대문희망공동체	서울역 인근 쪽방촌, 노숙인 섬김, 예배 및 양육 사역
	나눔장터	성도들이 기증한 의류, 생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선교사, 어려운 이웃 구제사역
사회나눔	오병이어	소외된 어르신들 대상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멘토링 사역
	엔젤트리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사역
	아트비전	대내외적인 전시, 지역섬김 미술교육, 소외계층 협력교육 사역
	은빛날개	은퇴 전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사역
	다문화	결혼이주 다문화가정과 차세대 돌봄, 포천하랑센터, 협력교회 등 섬김
사회화합	맘애크	싱글맘(미혼양육모, 다문화, 탈북민)의 자립지원과 멘토링 사역
	새사람사역	교도소에 복음으로 변화와 성숙을 돕는 사역(일대일제자양육, 큐티, 멘토링)
	선한울타리	보육원 아동을 응원하며, 시설외소생의 자립을 돕는 사역
	제이홀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위한 입양 및 위탁 지원 사역
	한누리	온누리교회의 탈북민 사역 및 통일한반도를 위한 건강한 크리스천 양성
한누리(탈북민)사역	하나원사역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지원 사역
	한터공동체(강서)	탈북 지체들과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강서구 소재)
	하나공동체(양재)	탈북 지체들과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양재 소재)

갓툰

성경 애니메이션 '갓툰'과 함께
재미있게 말씀을 만나보세요!

▶ 유튜브 **갓툰** 검색



토요일 오전 11시 업로드 *유튜브 '갓툰' 채널 커뮤니티에서 업로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